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툰, 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불꽃처럼 6화		
6. 붉은 땅의 함성			
<p>“진산서 동학패거리들 혼쭐을 내줬다면서?”</p> <p>“그러게. 우리 보부상들이 큰 건 한 거지.”</p> <p>주막에서 막 손가락을 들던 주학은 멈칫하고 옆자리에서 떠드는 보부상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p> <p>“전라도에서 감영군을 소집한다던데 거기나 들어갈까?”</p> <p>“한양에서도 관군이 벌써 출발했다더군. 이제 동학패들 다 끝장이야.”</p> <p>“이럴 때 민보군으로 나서서 공을 세우면 한 자리 받을 거 아닌가.”</p> <p>주학은 복잡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온 나라가 동학 얘기로 들썩이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홍계훈에게 장위영, 통위영, 서영의 병력으로 구성된 800여 명의 토벌군을 맡겨 파견했다. 그러나 주막에서 동학도를 옥하던 보부상들과 같은 이는 소수였다. 보부상들과 유림이 동학군에 반대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민심은 동학 군 편이었다.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삼삼오오 모여 동학군의 봉기 얘기를 하며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는 걸 주학은 알고 있었다. 정말로 세상이 바뀌는 것일까. 그럼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일까. 인혁이 말한 대로 양반도 천민도 구분 없이 된다면 과거시험이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주학은 고개를 저으며 책을 펼쳤으나 심란한 그의 눈에는 글자 보다 업동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업동이 더욱 보고 싶었다. 그녀를 갖고 싶었다. 과거에 급제를 해서 관직에 오르면 업동을 소실로라도 곁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평등한 세상이 오면 업동과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었다. 머리만 복잡해진 주학은 업동이 그의 눈과 마음에 들어온 날이 원망스러웠다.</p> <p>**</p> <p>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느 집 담벼락 위로 솟은 감나무에 먹음직스럽게 익은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달려있었다. 점심도 거르고 공부를 한 지라 주학은 입에 침이 고였다. 하지만 감은 손에 닿지 않을 높이였다. 주학이 한참동안 감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였다.</p> <p>“도련님.”</p> <p>돌아보니 업동이였다. 주학은 속을 들킨 것 같아 민망해졌다. 그런데.</p> <p>“감 드시고 싶으세요?”</p> <p>“뭐?”</p> <p>“제가 따 드릴게요.”</p> <p>“네가? 어떻게? 나 보다 키도 작으면...”</p> <p>말을 하던 주학은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다. 본심을 얘기할 뻔 한 것이다. 업동은 빙긋이 웃으며 주학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p> <p>“뭐라는 게냐.”</p> <p>“아휴 좀 앉아 보세요.”</p> <p>업동은 주학의 팔을 잡아 내렸다. 그는 흘린 듯 주저앉았다. 그러자 갑자기 업동이 주학의 등에 업히는 게 아닌가. 주학은 당황했다. 가벼우면서 부드러운 업동의 몸이 등에 느껴졌다. 업동이 비록 소녀였지만 주학으로서는 난생 처음 이성과 접촉한 것이었다. 감 냄새인지 업동의 몸에서 나는 냄새인지 모를 향기가 주학의 코를 자극했다.</p> <p>“이제 일어서세요. 어서요.”</p>			

이렇게 된 이상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주학이 일어서자 엽동은 그의 등에서 몸을 일으켜 감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닿을락 말락. 주학의 시선이 초조하게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때.

“누구나!”

담장 안에서 외치는 소리에 주학은 놀라 그만 엽동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잡히면 큰일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주학의 얼굴에 불쑥 감 하나가 들이밀어졌다. 엽동이 해맑게 웃으며 주학에게 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손이 까져서 상처가 난 것이 주학의 눈에 들어왔다.

“드세요.”

주학은 얼떨결에 감을 받아들였다. 거절하기엔 배가 고팠다.

“다쳤구나.”

“괜찮아요.”

썩썩하게 말하는 엽동이었다. 주학은 잠시 생각하다 감을 반으로 잘라 엽동에게 주었다.

“네 덕분에니 받아라.”

“아니어요. 도련님 드세요.”

“받으래도.”

“저는 점심 먹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학은 더 권하지 않고 감을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입 안 가득 퍼졌다.

엽동은 맛있게 먹는 주학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감 하나에 배부를 리 없지만 주학은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 줄테니 말해 봐라.”

“소원요?”

“그래. 딱 하나만이다.”

곰곰이 생각에 잠기던 엽동이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저도 아씨처럼 부르게 해주세요.”

“뭘?”

“오라버니라고.”

“....!”

“아씨가 도련님을 그렇게 부를 때 느낌이 참 좋아요. 오라버니. 부드럽잖아요.”

주학은 당황했다.

“너 그러다가 혼나면 어쩌려고?”

“다른 사람들 있을 땐 안 해야죠. 우리 둘이 있을 때만.”

대답을 바라는 엽동의 눈과 마주치자 주학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속에서 나는 열을 감추려고 주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엽동은 활짝 웃으며 좋아했다. 그리고 주학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오라버니.”

순간 주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주명이 부를 때와 느낌이 달랐다. 간질거리면서도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엽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엽동이 열 넷, 주학은 열 여섯 살 가을이었다.

**

인혁은 양반으로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농민들과의 동고동락이 즐거웠다.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순박한 사람들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 동화되어갔다. 관아로 쳐들어 갈 때도 인혁은 몸을 사리지 않았다. 방 안에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문만 하던 선비 인혁은 자신도 모르게 개혁의 의지를 품은 전쟁터의 투사 인혁으로 변모해 갔다.

전라 감사 김문현은 감영군 250명에 향병 천여 명, 보부상과 백정 수백 명을 징집해 한양에서 오는 경군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발하여 추적해 왔다. 혼자 공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었다. 동학군은 다른 지역 동지들과 합류하기 위해 황토현으로 향했다.

인혁을 포함한 동학군들은 감영군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긴장했다. 그 동안 거쳐 온 관아의 아전들과 나졸들은 동학군의 기세에 도망치거나 항복했다. 하지만 감영군은 훈련받은 병사들이었다.

두승산 사시봉에 진을 세운 전봉준과 지도부는 무기와 전투력에서 차이가 월등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 지리를 이용한 작전을 세웠다. 먼저 그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줄지어 산을 오르는 감영군을 공격했다. 활과 총을 쏘는 동학군의 공격에 선두의 감영군들이 쓰러졌다. 감영군도 반격에 나서 총을 쏘았다. 일대일로 싸우기에는 확실히 동학군이 열세였다. 얼마간 교전을 하던 동학군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감영군이 추격했지만 산세에 익숙하지 않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그 선발대에 다리부상인 인혁은 참여하지 못했다.

감영군은 동학군이 도주한 것으로 착각했다. 황토재 아래 산등성이에 자리한 그들은 동학군 진영이 너무 조용하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자 안심하고 승리감에 도취했다. 아둔한 동학군은 모두 나무껍질이나 먹고 계곡물로 배를 채워 당장 내일은 건지도 못할 것이라고 비웃으며 소를 잡아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춤추다가 잠이 들었다. 경비병도 세워두지 않았다.

새벽이 되었다. 때마침 비가 그친지 얼마 되지 않아 안개마저 자욱했다. 전봉준은 동학군을 두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관군의 정면을, 한 부대는 뒤쪽 진영을 기습하기로 했다. 그들은 창검을 지니고 바짝 엎드려 소리죽여 전진하여 감영군 진영에 이르렀다. 중간에 순찰을 돌던 관군들은 평상복을 입은 동학군들을 한편인 보부상으로 알고 검문도 하지 않았다. 반면 동학군들은

“어둠속에선 적군 야군 구분하기 힘들 것이다. 조심하라.”

“우리는 흰 옷을 입었으니 검은 옷 입은 감영군만 공격하도록 하라.”

“보부상들은 등에 붉은 도장을 찍은 자들이다.”

라는 명령을 숙지하고 있었다.

황토현 고지에 도달하자 전봉준의 신호가 떨어졌다. 동학군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다. 감영군 진영은 동학군의 급습에 이리저리 도망가는 사람, 엎어지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숨는 사람 등으로 아비규환이었다. 순식간에 시체가 쌓여갔다.

인혁도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아픈 다리와 발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는 그 동안 연습했던 대로 소총을 조준하고 도망가는 감영군을 향해 쏘았다. 적이 쓰러졌다. 그러나 사람을 맞췄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동료인 엄이경을 향해 달려드는 감영군이 보였다. 마지막 발악인 듯 했다. 소총을 다시 장전할 시간이 없었다. 인혁은 쓰러진 시체 옆에 있던 칼을 주워 들고 총대 총으로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 뛰어들었다. 인혁이 휘두른 칼에 감영군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뒤로는 아무 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인혁은 정신없이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갔다.

동학군은 삼면을 포위하고 함성을 지르며 감영군을 한 쪽 방향으로 몰아갔다. 일시에 무너진 감영군들은 산 아래 들녘까지 내몰려 물을 받아둔 논의 진흙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공격에 쓰러져 갔다. 감영군의 사상자는 1천 명 이상이었고 동학군은 군량미 400석, 소총 600자루, 대포 1문을 빼앗았다. 완벽한 승리였다.

전봉준과 지도부들은 곧바로 정읍으로 진격하기로 하고 한양에서 오는 경군의 진로를 예상하며 회의를 하고 있었다.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었다. 정읍 다음엔 전주였다. 경군 보다 먼저 전주를 점령하지 않으면 한양으로의 진군에 차질이 생길 것이었다. 그 때 막사 밖이 웅성거리며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수상한 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전봉준은 밖으로 나갔다. 시신을 묻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등 전투 뒷수습을 하던 사람들이 막사 앞으로 몰려들었다.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안심할 수 없어 주변을 탐색하러 갔던 접장들이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두 남자를 묶어 끌고 왔다. 접장 두 사람도 몸싸움을 한 듯 상처가 나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엄이경이 인혁의 다친 발을 묶어주고 있었다. 이경은 불편한 몸으로도 자신을 위해 뛰어든 인혁이 고마웠다. 두 사람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도 막사 쪽을 쳐다보았

으나 사람들에 가려져 붙잡혀 온 자들이 보이지 않았다.

“하, 요것이 몸집은 작은데 어디서 배웠는지 무술 꽤나 하던데요.”

“저 아래서 시신들 몸을 뒤집고 있더라구요.”

“뭐라고? 도둑놈들 아니야?”

“그냥 바로 요절을 내지 그랬어.”

“이 사람아, 포로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나.”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선 전봉준이 들어섰다. 사람들이 장두의 등장에 말을 멈추고 그의 명을 기다리는 듯 바라보았다. 전봉준의 눈에 고개를 숙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과, 그를 감싸 안고 동학군들을 노려보는 얼굴이 보였다. 험령한 옷과 패랭이를 쓴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다.

“장두,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어요. 아주 수상한 자들입니다.”

전봉준에게 보고하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자와 전봉준의 눈이 마주쳤다. 낮익은 얼굴이었다.

“아니, 너는?”